

한국어

엘리자베스 베이 하우스 (ELIZABETH BAY HOUSE)

7 ONSLOW AVENUE
ELIZABETH BAY
NSW 2011
AUSTRALIA
www.hht.net.au

전화 02 9356 3022
팩스 02 9357 7176
인포라인 02 8239 2442
info@hht.net.au
청각장애인용(TTY)
02 8239 2377

기타 HISTORIC HOUSES TRUST 자산: 엘리자베스 베이 하우스 (ELIZABETH BAY HOUSE) | 엘리자베스 농원 (ELIZABETH FARM) | 총독관저 (GOVERNMENT HOUSE) | 하이드 파크 배럭 박물관 (HYDE PARK BARRACKS MUSEUM) | 사법 및 경찰 박물관 (JUSTICE & POLICE MUSEUM) | 머루갈 (MEROOGAL) | 최초 총독관저 부지의 시드니 박물관 (MUSEUM OF SYDNEY ON THE SITE OF FIRST GOVERNMENT HOUSE) | 로즈 시들러 하우스 (ROSE SEIDLER HOUSE) | 루즈힐 저택 (ROUSE HILL ESTATE) | 수잔나 플레이스 박물관 (SUSANNAH PLACE MUSEUM) | 조폐국, 캐롤린 심슨 서재 및 연구자료 박물관 (THE MINT AND CAROLINE SIMPSON LIBRARY & RESEARCH COLLECTION) | 보클루즈 하우스 (VAUCLUSE HOUSE)



HISTORIC HOUSES TR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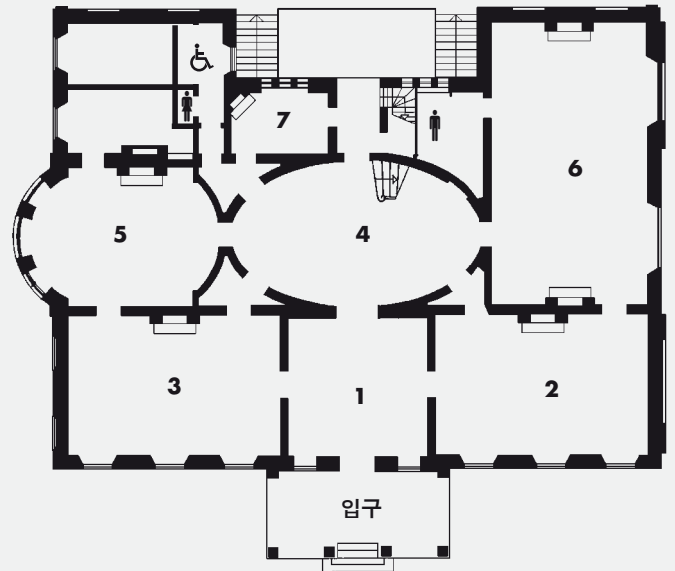
엘리자베스 베이 하우스는 1835년에서 1839년까지 건축된 저택으로, 1826년부터 1837년까지 뉴사우스웨일즈의 식민성 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맥클레이(Alexander Macleay, 1767-1848)를 위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맥클레이는 그의 부인인 엘리자(Eliza, 1869 - 1847)와 여섯 명의 딸과 함께 시드니에 도착한지 얼마되지 않은 1826년 엘리자베스 베이의 54에이커 땅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이 곳에 자신의 식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한편 시드니 항구(Sydney harbour)의 배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연출해낸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1832년 이전의 영문 자료에서 그리스 부흥 양식 설계(Plans for the Greek Revival) 저택을 발견하였습니다.

공사는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정원 조형을 설계한 바 있는 건축가 존 버지(John Verge)의 지휘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베이 하우스는 1840년 초 식민지를 강타했던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맥클레이의 재정적 어려움이 겹쳐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택 전체를 둘러싼 테라스에 구상했던 도리아(Doric) 양식의 콜로네이드는 결국 건설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1903년까지 맥클레이 가(家)는 3세대에 걸쳐 이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 1927년까지 가정집으로 사용되었고 1928년에서 1935년까지 예술가들의 아지트 역할을 하였고 1930년대에는 상류사회의 인기있는 연회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공동소유 주택(Flat)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저택은 1977년 다시 복원되어 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는데, 맥클레이 가가 거주했던 1839년에서 1845년까지의 시기 그대로 재현하도록 그 내부가 구성되었습니다.

1층



1층

- 홀** 현관은 그리스 양식을 재현한 디테일, 특히 호주산 삼목으로 장식된 아키텐트레이브와 석고 코니스, 실링로즈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문 주위에 장식된 벽감에서부터 응접실과 식당에 이르기까지 대리석 무늬 페인트로 마감된 저택의 원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다른 부분들은 스크래일 테스트를 거쳐 원래의 페인트 색과 석조 마감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정문의 커다란 자물쇠는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문을 통해 펼쳐지는 정경은 이 저택이 클라크 섬 (Clark Island) 과 축을 이루는 자리에 위치에서 시드니 항구 입구를 향해 나있는 이 저택의 가장 특징적인 설계를 잘 보여줍니다.
- 응접실** 응접실은 저택의 손님들이 저녁식사 후 공식적인 리셉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들 윌리엄 샵 맥클레이(William Sharp Macleay)는 1836년에서 1838년 사이 런던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가구들을 구입하여 이 응접실에 비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구들은 1845년에 알렉산더 맥클레이의 빚을 갚기 위해 시드니의 신축 총독관저(Government House)에 팔렸습니다. 현재 이 방의 가구들은 당시의 기록을 근거로 마련된 것입니다.

- 식당** 1845년, 알렉산더 맥클레이는 엘리자베스 베이 하우스를 그의 아들인 윌리엄 샵 맥클레이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저택의 많은 방에 있던 유품 목록은 양도증서에 첨부되었습니다. 식당의 식기 선반은 이 목록에 따라 루이 양식을 재현한 스타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동안에는 녹색 펠트 천으로 덮어 놓았으며 의자들은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 살롱** 원형의 돔 천정으로 설계된 살롱은 호주 식민지시대 건축 양식 중 가장 세련된 인테리어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살롱의 바닥과 캔틸레버식 계단은 마럴렌(Marulan) 사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저택의 굴뚝에는 이 마럴렌 사암의 광택 마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살롱의 형태는 곡선의 삼나무 문과 아침식사실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출입구의 대형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단은 가짜 문을 지나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계단 아래의 기백이 넘치는 청동 사자상도 좋은 볼거리입니다!

- 5 **아침식사실** 아침식사실은 맥클레이 家 사람들이 평상시 식당과 거실로 사용하던 곳으로 보입니다. 1845년 기록에 의하면 이 방의 가구들은 맥클레이 家가 엘리자베스 베이 하우스로 이사하기 전에 살았던 시드니 브리지 가(街)의 식민성 장관 사택(Colonial Secretary's House)의 식당과 응접실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에는 알렉산더 맥클레이가 1845년 은퇴 후 옮겨가서 살았던 브라운로 힐(Brownlow Hill)에서 가져온 '가족예배'라는 제목의 조각 한 쌍이 있습니다.
- 6 **서재** 알렉산더 맥클레이는 1794년부터 열렬한 곤충수집가였는데 1826년 시드니로 이주하며 함께 가져온 유럽 최대의 개인 소장 곤충 수집본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영국 과학 협회의 저명한 회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수집본은 18세기 후반 호주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영국의 과학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쿡(Cook) 선장과 첫 함대(First Fleet) 그리고 존 윌리엄 르윈(John William Lewin)의 탐험에서 수집한 표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클레이의 수집본은 그의 아들인 윌리엄 샵 맥클레이(1792-1865)와 조카 윌리엄 존 맥클레이(1820-1891)로 전해졌으며 윌리엄 존 맥클레이는 이 수집본을 시드니 대학(University of Sydney)의 맥클레이 박물관(Macleay Museum)에 기증품으로 내놓았습니다. 알렉산더의 수많은 곤충 표본상자들은 현재 맥클레이 박물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이 저택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 7 **집사 집무실** 집사 집무실은 맥클레이 가문에서 일했던 집사의 사무실이자 작업실입니다. 이 곳은 주방과 와인 저장고 그리고 식당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집사 사무실이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집사가 저택에 도착하는 사람들과 나가는 사람들을 응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큰 현관문에는 외부 열쇠구멍이 없기 때문에 집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문을 열고는 했습니다. 집무실의 옷장, 의자(바깥으로 서비스 야드가 보이고 세개의 창으로 채광이 되고 있음), 석조 싱크대는 이 방의 페인트와 석고 마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새로 재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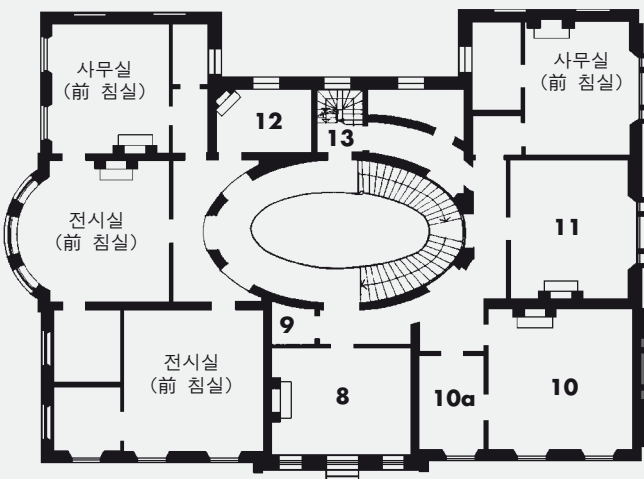
2층

- 8 **모닝룸** 사적인 가족 거실로 사용되었던 모닝룸은 저택 1층의 방들보다 좀 더 안락한 크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방의 내부를 보면 재봉일과 같이 맥클레이 家 여인들이 낮 동안 어떤 일을 하며 지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 9 **린넨 옷장** 린넨, 옷감, 실내 장식용 커튼들을 다루고 관리하는 것은 맥클레이 家 여인들의 중요한 일상 업무였습니다. 린넨 옷장은 모닝룸 옆에 위치하여 하인들의 출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10 **맥클레이 부부 침실** 2층의 6개 침실 중 2개는 그 내부가 복원되었습니다. 나머지 침실들은 전시용 및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주 침실에는 붉은색 울 커튼으로 장식된 영국식 4기동 침대가 있는데, 이 침대는 짚, 말갈기, 깃털을 넣어 만든 3단 매트리스로 그 높이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침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 11 **맥클레이 자녀 침실** 맥클레이 자녀의 침실은 하얀 먼 커튼이 걸린 식민지풍 텐트 침대가 놓여 있는데, 이것은 주 침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 침실의 세면시설은 별도의 드레싱룸(10a)에 설치된 반면, 맥클레이 자녀 침실의 세면시설은 방 한 쪽 구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12 **하녀 방** 이 방은 맥클레이 부인의 하녀, 하녀 우두머리, 몸종이 기거하던 방이었던 만큼 내부가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맥클레이 부인의 하녀는 마사 핸드콕스(Martha Handcox)라는 사람으로, 전 여주인의 보석(200파운드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은 후 1836년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1845년, 그녀는 맥클레이의 집사이자 또 한 사람의 죄수였던 피터 헨더슨(Peter Henderson)과 결혼했습니다
- 13 **계단 뒷 계단**은 원래 하인들이 다락방에서 지하실까지 저택의 대부분의 장소에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계단은 1, 2층 모두 문으로 가려져 살롱에서 보이지 않으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이 저택의 빌라식 설계를 잘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 14 **지하실** 저택의 지하에는 음식과 음료수를 저장하는 두 개의 별도 지하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가정부와 집사가 기거하던 곳이었습니다. 와인과 술 저장고에는 와인병을 저장하는 캐스크 룸과 저장 용기가 있습니다.

부속 주방(파괴됨) 저택 뒤뜰에는 현재 뒷담장과 일직선을 이루는 위치에 별도의 2층 짜리 부속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곳은 드러나지 않게 본채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주방, 식기실, 세탁실, 그리고 하인들 침실이 있었습니다.

2층



지하실

